

●●● 박근식 (주)마니커 고문

양계업의 웰빙을 추구하며...



본고는 지난 1958년부터 1995년까지 37년 동안 농촌진흥청에 몸담아 오면서 양계업 발전은 물론 특히, 질병, 방역분야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해 왔고, 퇴직 이후에도 환경분야, 수의분야 등에서 연구, 봉사활동을 해오다 현재는 (주)마니커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박근식 박사를 만나 근황을 들어보았다.

◀박근식 1957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졸
1982 동경농업대학교 대학원 농학박사
1994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 소장
1996 (사)한국축산기자재협회 회장
1996 (사)북방농업연구소 초대총무이사
1996 (사)대한수의사회 부회장, 고문
1988 (사)대한양계협회 위생방역대책 위원장
2002 (주)마니커 고문

계속되는 양계업 연구

박근식 박사는 고희(古稀)가 지난 나이(71)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직생활 당시보다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1995년 가축위생연구소(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소장직을 마감하고 공직을 마친 후 (사)한국기자재협회의 권유로 회장직을 1

년간 봉직하면서 한국축산기자재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등 협회의 기반을 조성하였고 대한수의사회에서는 당시 이길재 수의사 회장(당시 국회의원)의 간청으로 상근부회장직을 맡아 열악한 환경에서 맨주먹으로 분당에 수의과학회관을 건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등 큰 역량을

보여주었다.

2002년부터는 이제 그만 설때도 되지 않았느냐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마니커 한형석 사장의 권유로 다시 양계업 관련 일을 맡게 되었고 주말에는 교회 봉사활동에 충실하다 보니 일주일간이 너무나 바쁘게 지나간다. 아침마다 틈틈이 즐기고 있는 테니스가 유일한 운동이자 취미생활이다.

박근식 박사는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에 위치한 (주)마니커 사육본부에 몸을 담으면서 종계장, 부화장의 실태를 파악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국내 양계의 열악한 환경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새로운 지침을 통한 체계확립이 필요함을 느꼈다. 따라서 현재는 집과 회사를 오가며 469쪽 분량의 양계 소독과 육계 사양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완성하기에 이르렀고, 이제 회사는 물론 양계 전반적으로 현장 접목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양계질병의 기초확립

박근식 박사는 196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국내 양계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축위생연구분야에 진력해 왔다. 닭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1966년 가축위생연구소 닭 질병을 연구하는 당시 계열과(현 조류질병과)에 근무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닭 가검물이 농가로부터 들어오면 병리과에서 처리할 정도로 체계가 없었고 장비도 없어 애를 먹었다. 따라서 세계식량기구(FAO)에 원조를 요청(가금용 백신개발과 생산을 위한 장비를 지원 등)을 하여 결국 세계기아해방기구를 통해 미국의 유진시로부터 시민 걷기 운동으로 휘발유를 절약하여 한국의 양계를 돕기로 하면서 고속원심분리기, 조직배양기 등 최신의 연구장비가 도착되기에 이르렀고 이는 국내 질병연구와 예방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초석이 되었다.

또한 1967년부터는 5년여에 걸쳐 주로 여름 방학을 이용해 당시 가금협회 오봉국, 오세정 교수

들과 함께 20여회에 걸쳐 '하계양계강습회'를 개최하면서 양계산업과 기술을 접목시키는 등 생산자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는데 노력해왔다. 이 외에 백혈병과 마렐병의 국내 생산기술을 보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고 마이코플라스마 병의 예방을 위한 SPF종란생산 기술을 확립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1978년에는 대한양계협회에서 양계대상을 수여할 정도로 양계분야에 높은 공적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산학연이 한배를 타고

박근식 박사는 양계분야도 이제 웰빙을 추구하는 시대로 변해야 함을 강조했다. 언제까지 가격과 질병들만 가지고 씨름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수급조절을 통해 불황을 걱정하지 않고 계획적이고 풍요로운 양계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이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를 비롯해 산학연이 한 배를 탄 공동체의식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한국의 양계산업은 희망과 발전이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대한양계협회의 검정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한 박근식 박사는 협회주요업무중 닭검정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면서 과거에는 품종을 선택하기 위한 지침에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이제는 사양관리를 통해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을 주는 방안으로 나아가함을 강조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낙후되어 있는 검정소 시설을 오염이 되어 있지 않는 장소를 물색해 현실에 맞게 투자를 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조언을 주었다.

박근식 박사는 최근 1996년에 한 독지기에 의해 만들어진 (사)북방농업연구소(소장 박래경)에서 총무이사로 참여하면서 중국 조선자치구역과 연해주를 방문, 성장해가는 양계산업을 연구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등 양계업 발전에 정진하고 있다. (정리 | 김동진 차장) 